

#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sup>☆</sup>

##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Harmful Content on Digital Sexual Crim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Hate Speech

조 성 회<sup>1\*</sup>  
Sunghui Cho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9,2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디지털 성범죄, 유해 콘텐츠, 디지털 혐오 표현, 청소년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harmful content and digital hate speech on adolescents'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an issue that has been escalating in society. Additionally, it seek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hate speec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harmful content and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model was investig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data from 9,218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23 Cyberbullying Survey. The findings confirmed both the direct influence of harmful content exposure and digital hate speech on adolescents'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hate speec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ful content exposure and digital sexual crime exposure.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proposed for preventing adolescents' exposure to digital sexual crimes.

☞ keyword : digital sexual crime, harmful content, digital hate speech, adolescents

## 1. 서 론

한국사회의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활동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디지털 환경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

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제공, 학습의 기회와 학습 방법의 다양성 확대의 매체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1, 2]. 하지만 인터넷 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해 콘텐츠 및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 노출의 가능성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3]. 특히, 온라인을 매체로 전파되는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유해 콘텐츠는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청소년들은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판단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sup>1</sup>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14754, Korea.

\* Corresponding author (shcho@stu.ac.kr)

[Received 30 September 2024, Reviewed 2 October 2024, Accepted 8 October 2024]

☆ 이 연구는 2024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인식되고 있어 오프라인의 유해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만큼의 충분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해 환경과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4]. 이러한 온라인상의 환경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적이거나 성착취적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갖게 하고, 반복되는 부정적 환경의 노출로 인해 위협성의 인식이 낮아짐과 동시에 점차 허용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유해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은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방적인 행위와 인지적 작용에 영향을 주어 해당 행위를 습득하고 학습하게 하는 맥락을 형성한다[5]. 즉 유해 환경 노출 경험은 디지털 혐오 표현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며,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둔감하게 한다[6, 7]. 디지털 혐오 표현 역시도 청소년들이 소속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성적 폭력이나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를 조장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8, 9].

특히, 청소년들이 접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온라인의 특성으로 인한 확산성과 재생산의 문제로 인해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은 심각성을 더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노출은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정서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고립감과 수치심을 발생시킬 위험을 증가시킨다[10].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온라인의 특성상 혐오 표현을 쉽게 접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잠재적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11].

지금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현황과 대응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회복 방안이 논의되었다[12]. 또한 디지털 성범죄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3].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인터넷 환경 속에서의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있어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국가승인 지정 통계 제164003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이버폭력실태 조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험과 인식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정책 수립의 객관적인 근거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진행된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9,218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 2.2 주요 변수

#### 2.2.1 디지털 성범죄 노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5문항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지난 1년간 성범죄 관련 사항의 목격 경험에 대한 측정 결과를 활용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노출과 관련된 성범죄 관련 항목에는 불법 촬영물, 성적 불쾌감 유발 촬영물, 성적 내용이나 합성물, 성행위의 강요와 피해 구제 방해 영상물, 채팅앱 기반 음란 행위 녹화 영상물의 목격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0)”에서 “거의 매일(4)”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측정값이 클수록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측정한 5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85로 분석되었다.

#### 2.2.2 유해 콘텐츠 노출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5문항을 활용하였다. 유

해콘텐츠 노출은 지난 1년간 정보검색이나 팝업을 통한 우연한 노출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유해콘텐츠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에는 폭력성, 선정성, 혐오적 내용, 불법 행위, 허위 정보와 관련된 글, 만화,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 노출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0)”에서 “매우 자주(4)”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유해콘텐츠 노출의 측정값이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노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유해콘텐츠 노출을 측정한 5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83으로 분석되었다.

### 2.2.3 디지털 혐오 표현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된 12문항을 활용하였다. 디지털 혐오 표현은 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나 혐오, 차별이나 배제의 조장, 폭력이나 공격을 조장하는 표현을 한 경험을 측정하였다.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에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 성적지향, 장애, 성별, 신체나 외모, 가족 구성상의 다문화 특성, 연령, 경제 상황, 학력, 지역,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특정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난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혀 없음(0)”에서 “매우 자주(4)”의 응답 범주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디지털 혐오 표현의 측정값이 클수록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 경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디지털 혐오 표현을 측정한 12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91로 분석되었다.

### 2.2.4 인가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조사된 변수 중 청소년의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만 나이로 측정하였다.

##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과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근

거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성과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 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연구모형 왜곡 가능성 확인을 위해 공차와 VIF 값을 통한 다중공성선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의 특성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연구모형 설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측정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 종속변수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전체비총합법으로 개별 측정 문항의 측정값을 통해 각 변수의 잠재변수를 추정하였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은 절대적합지수  $^2$  *GFI*, *SRMR*, 증분적합지수 *TLI*, *CFI*와 함께 추가적으로 *RMSEA*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최종적인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개별 변수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주요 변수 간의 관계 구조를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경험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갖는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 방법(표집 횟수 1,000회)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5.0과 AMOS 21.0이 활용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778	51.8
	여성	4,440	48.2
연령	12세 이하	3,187	34.6
	13~15세	3,025	32.8
	16세 이상	3,006	32.6
	<i>m(SD)</i>	13.85(2.49)	

## 3. 연구 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3년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9,218명은 성별과 연령에서 표1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연구대상 중 남자 청소년은 4,778명(51.8%)으로 여자 청소년 4,440명(48.2%)에 비해 약

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에서는 12세 이하인 경우가 3,187명(3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13~15세 3,025명(32.8%), 16세 이상 3,006명(3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85세( $SD=2.49$ )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 중 종속변수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은 평균 .08점( $SD=.36$ )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은 1년에 1~2회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은 평균 1.08점( $SD=.95$ )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수준은 매우 드물게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도 평균 .07점( $SD=.33$ )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 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은 1년에 1~2회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변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노출	1		
유해 콘텐츠 노출	.226***	1	
디지털 혐오 표현	.440***	.193***	1
<i>m</i>	.08	1.08	.07
<i>SD</i>	.36	.95	.33

\*\*\* $p<.001$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은 유해 콘텐츠 노출( $r=.226, p<.001$ )과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 디지털 혐오 표현( $r=.440, p<.001$ )과는 다소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은 다소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193, p<.001$ ).

### 3.3 연구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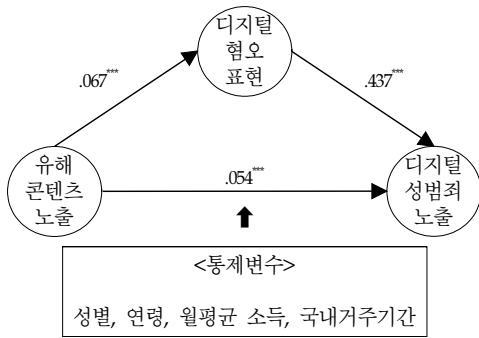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경험의 영향과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

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을 공차와 분산팽창요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공차 중 가장 작은 값은 .853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 중 가장 큰 값은 1.172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도 지수 중 절대적합지수인  $\chi^2=7158.752(p<.001)$ 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충분하지 못한 수준을 보였으나  $\chi^2$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따라 적합성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모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한 적합도 지수 중 절대적합지수인  $GFI=.928, SRMR=.031, 증분적합지수인 TLI=.943, CFI=.949$ 의 높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RMSEA=.056$ 으로 적합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제시된 유해 콘텐츠 노출( $B=.054, p<.001$ )과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 $B=.437, p<.001$ )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 관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중 성별( $B=.013, p<.05$ )과 연령( $B=-.005, p<.001$ )도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의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 성별, 연령을 통해 청소년의 성범죄 노출의 전체 변량 중 약 25.2%를 설명하고 있었다( $SMC=.252$ ).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혐오 표현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노출 수준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에 대해 독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은 99.9%의 신뢰수준에서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7, p<.001$ ). 통제변수인 성별( $B=-.080, p<.001$ )과 연령( $B=-.004, p<.05$ )도 디지털



(그림 1) 주요 경로계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의 도식  
(Figure 1) Research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

혐오 표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지털 혐오 표현의 전체 변량 중 5.3%를 설명하였으며( $SMC=.053$ ), 이러한 결과는 유해 콘텐츠 노출 수준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디지털 혐오 표현의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독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과 통제변수인 성별과 연령이 디지털 혐오 표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간접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표집 횟수 1,000회)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결과는 표 4를 통해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유해 콘텐츠 노출은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여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갖는 간접 영향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71과 상한값 .116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제변수 중 성별도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 중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여 갖는 간접 영향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65과 상한값 -.04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령도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는 간접 영향으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 -.022와 상한값 -.003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과 성별, 연령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영향 중 디지털 혐오 표현을 매개하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 성별, 연령 모두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들은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모형적합도  
(Table 3) Parameter Estimate and Model Fit

경로	B	S.E.	C.R.		SMC
유해 콘텐츠 노출→디지털 성범죄 노출	.054***	.004	14.766	.172	.252
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437***	.012	37.534	.447	
성별→디지털 성범죄 노출	.013*	.006	2.068	.202	
연령→디지털 성범죄 노출	-.005**	.001	-3.800	-.040	.053
유해 콘텐츠 노출→디지털 혐오 표현	.067***	.004	16.680	.207	
성별→디지털 혐오 표현	-.080**	.007	-11.224	-.118	
연령→디지털 혐오 표현	-.004*	.002	-2.426	-.028	

$\chi^2=7158.752(df=244, p<.001)$ ,  $CMIN/DF=129.450$ ,  $GFI=.928$ ,  $SRMR=.031$ ,  $TLI=.943$ ,  $CFI=.949$ ,  $RMSEA=.056$

\* $p<.05$ , \*\* $p<.01$

(표 4) 연구모형의 매개 효과 분석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경로	B		95% 신뢰구간	매개 효과
유해 콘텐츠 노출→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029	.093	.071~.116	부분매개
성별→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035	-.053	-.065~-0.043	부분매개
연령→디지털 혐오 표현→디지털 성범죄 노출	-.002	-.012	-.022~-0.003	부분매개

\* $p<.05$ , \*\* $p<.01$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 디지털 혐오 표현, 통제변수인 성별과 연령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특성에 따라 표 5와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로 제시된 유해 콘텐츠 노출은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해  $B=.084(=.264)$ 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직접효과  $B=.054(=.172)$ 와 간접효과  $B=.029(=.093)$ 로 구분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디지털 혐오 표현은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해 직접효과로  $B=.437(=.447)$ 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B=-.022(= -.033)$ 의 총효과 중 직접효과  $B=.013(=.020)$ 와

간접효과  $B=-.035$  ( $=-.053$ )의 수준을 나타냈으며, 연령도  $B=-.007$  ( $=-.052$ )의 총효과 중 직접효과  $B=-.005$  ( $=-.040$ )와 간접효과  $B=-.002$  ( $=-.012$ )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전체 변수 중 총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연령, 성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효과 분해  
(Table 5)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s

경로	직접효과 B( )	간접효과 B( )	총효과 B( )
유해 콘텐츠 노출→성범죄 노출	.054(.172)	.029(.093)	.084(.264)
디지털 혐오 표현→성범죄 노출	.437(.447)	-	.437(.447)
성별→성범죄 노출	.013(.020)	-.035(-.053)	-.022(-.033)
연령→성범죄 노출	-.005(-.040)	-.002(-.012)	-.007(-.052)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과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 속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이 디지털 혐오 표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는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매우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인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온라인 일탈행위인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혜미와 동료들(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수준이 증가할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하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가능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AI 기반의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청소년의 디지털 혐오 표현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Chetty와 Alathur(2018)가 주장한 소셜 네트워크상에서의 증오 표현이 하나의 테러리즘으로 실제 사건들을 유발하는 촉발 요소가 된다는 점과 관점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디지털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도 문제를 갖지만,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배제, 폭력성에 대한 둔감성을 점차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문제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익명성과 낮은 책임성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가지는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사회 전반의 갈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와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이 갖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유해 콘텐츠 노출의 증가는 과도적인 노출을 넘어서서 능동적 행위인 디지털 혐오 표현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심각한 위해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들이 갖는 체계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유해콘텐츠 접촉, 디지털 혐오 표현,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성장의 중요 단계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와 판단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청소년을 위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Reference)

[1] H. Ryu, and Y. Kang, "The effect of SNS social capital and empowerment on the digital citizenship of youth: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NS use motivation," Forum For Youth Culture, vol.74, pp.67-94, 2023.  
<https://doi.org/10.17854/ffyc.2023.04.74.67>

[2] T. Dienlin, and N. Johannes,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use on adolescent well-being,"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vol.22, no.2, pp.135-142, 2020.  
<https://doi.org/10.31887/DCNS.2020.22.2/dienlin>

- [ 3 ] K. Jang, and J. Lim, Studying on status of digital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eoul, pp.1-196, 2021. <https://www.nypi.re.kr>
- [ 4 ] H. Kim, Research on the status and response to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pp.1-316, 2021. <https://www.seoulwomen.or.kr>
- [ 5 ] R. Akers, and W. Jennings, The Social Learning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pp.103-120, 2019. [https://doi.org/10.1007/978-3-030-20779-3\\_6](https://doi.org/10.1007/978-3-030-20779-3_6)
- [ 6 ] Y. Choi, and J. Ahn,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rganizational digital sex offenders : Focusing on literature research,"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vol.14, no.3, pp.185-210, 2020. <https://doi.org/10.29095/JKCA.14.3.10>
- [ 7 ] H. Lee, S. Yang, and E. Kim, "Influencing factor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harmful contents and cyber-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Parental mediation versus peer norm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60, no.3, pp.209-236, 2016. <http://dx.doi.org/10.20879/kjcs.2016.60.3.008>
- [ 8 ] J. Martinez-Bacaicoa, N. Real-Brioso, E. Mateos-Pérez, and M. Gamez-Guadix, "The role of gender and sexism in the moral disengagement mechanisms of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152, pp.1-10, 2024. <https://doi.org/10.1016/j.chb.2023.108060>
- [ 9 ] N. Chetty, and S. Alathur, "Hate speech review in the context of online social network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40, pp.108-118, 2018. <https://doi.org/10.1016/j.avb.2018.05.003>
- [ 10 ] S. Pashang, N. Khanlou, and J. Clarke, "The mental health impact of cyber sexual violence on youth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vol.17, pp.1119 - 1131, 2018. <https://doi.org/10.1007/s11469-018-0032-4>
- [ 11 ] M. Kranenbarg, T. Holt, and J. Gelder, "Offending and victimization in the digital age: Comparing correlates of cybercrime and traditional offending-only, victimization-only and the victimization-offending overlap," Deviant Behavior, Vol.40, no.1, pp.40-55, 2017. <https://doi.org/10.1080/01639625.2017.1411030>
- [ 12 ] H. Shin, and J. Lee, "A study on the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18, no.4, pp.103-114, 2022. <http://dx.doi.org/10.25277/KCPR.2022.18.4.103>
- [ 13 ] E. Park,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riminal Experiences of Youth Perpetrators of Digital Sex Crim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vol.17, no.1, pp.185-223, 2023. <https://doi.org/10.46626/affc.2023.17.1.7>
- [ 14 ] W. Lee,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Introduction of Online Search,"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24, no.2, pp.183-212, 2022. <https://doi.org/10.23894/kjcc.2022.24.2.006>

## ● 저 자 소 개 ●



### 조 성 희(Sunghui Cho)

2001년 숭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사회복지학과(문학사)

2003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2011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2012년~2018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년~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국제개발협력 등

E-mail : shcho@stu.ac.kr